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데 찾고 안 찾아가 어디 있어요

29면에서 계속

을 볼 때에 지금 남들이 다 해 줘요. 해 주는데 해서 받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이룬난 사람들 이나 받지, 창피하고 양심이 있고 어렵고 가 장들이 애쓰고 힘들고 노인네가 숨겨져 가지 고 그냥 고생하는 사람이 허다하 많거든. 그 런 부분을 좀 봐서 힘이 없이 도와줘라, 있으 면, 없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또 마음으로 도와줘라.

늘어도 늘어도 줄지 않는 마음, 그 됐다 뵈 하느냐 이거야. 응? 마음 한 찰씩 담아서 그냥 별려라 이거야. 별려도 별려도 줄지 않 는다 이거야. 그 마음 아꼈다가 뭐 하느냐 이 거야. 마음을 아끼느라고 미운 사람 고운 사 람을 가려 가지고 이쁜 사람만 주고 미운 사 람을 안 준단 얘기야? 마음을 아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통달을 못해. 또 있소?

질문자2(남) 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손해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고 용 서할 수 있으나, 용서라는 것은 마음에서겠 죠.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차 없이 직선적으로 칠 때, 그럴 때 저희가 상대한테 '아, 내가 조금 전에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기 이전 에 제가 바꿔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 보니 까 안 풀리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건 아니었구나.' 그래 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제 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 으로나마 마음이 튀어나간 것은 마음에서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 생각이 옳다 하나, 상대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스님 생각이 왜 그렇게 길어요? 사람이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길게 생각을 하면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묵살 하고, 그냥 그 시원치 않고 뭐 이쁘고 밍고 간 에 '모두가 돌아야 아닌 까답인데 뭐, 그렇게 돼 야 하겠느냐. 좋게 해결이 나가지.' 이렇게 한 생각만 하면 될 거를 뭐 거기 이유가 불어요? 이유가 불어면 안 돼요.

질문자3(남) 크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 부해온 과정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 습니다. 저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앉으나 서 나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껌을 하나 씹다 라도,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항상 관하고 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래 전부터 항상 스스로 제 마음자리를 계속 지켜 보면서 가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렇 게, 의식적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항 상 스스로 지켜보고 가거든요. 가면은 아무것 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데 또 제가 일을 할

때나 길을 걷거나 집에 앉아 있거나 항상 이 것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크스님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 도반들 생각을 한다든지 지원의 스님들 생각을 한다든지, 하 여간 마음공부에 관해서만은 자동으로 항상 연결돼 돌아가는데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 니다. 일을 할 때는 일에 전념해야 될 거 같은 데 그게 안되고 그냥 한다는 의식 없이 자동 으로 그냥 연결되어 돌아가거든요.

크스님 24시간을 일을 하는데요, 주인공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런데 24시간이 지나서 주인공 생각이 낫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게 24시간을 공간을 두고서 뛰어줬어요? 그냥 무시(無時)거든, 무 시, 무시라고, 무심(無心). 그러니까 24시간 뒤에 생각난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24 시간이 있지, 24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까 그것도 초월해서 그냥 그 시간에 생각났으 면 그 시간에 난 거지 24시간이 왜 거기 붙느 냐 이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이 붙기 이전에

일에 몰두를 했다 해서 주인공을 생각지 않 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그렇게 몰두하게 만들 었으니가 주인공이 한 거지, 주인공의 시지일 뿐이지, 움직여라 했을 뿐이지 뭐가 주인공 이 아니라 말이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이다 하고 움직여라 하는 것도 거기서 움직여라 게 하나씩 움직여라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영원 한 자기의 근본이 빠진다면은 자기는 송장이 되는데 뭐 움직여라 게 있어요, 네? 안 그래 요? 자기가 지금 눈 뜨고 이렇게 고깃짓 하는 것도 자기 영원한 근본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있는 거지, 그게 빠지면 송장이 돼서 그냥 눈 감고 있을 걸요, 아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 요. 눈 하나 뜨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바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모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인 공이 자기를, 이 몸을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맞는지 모르 겠습니다.

크스님 아니 그렇든 저렇든, 그런 좋은 소리 를 하든 안 하든, 집에 가서 배고프다고 '애! 밥 가져오너라.' 이런 소리를 하든 어떻게 됐 든 거기서 나오는 소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가서 색깔을 보고 말을 해 보라 고요, 누가 하나. 그 모습은 누구며 그 모습 속 에 말하는 자는 누군가? 그냥 모르든 알든 그 냥 무조건 믿어 버리라니깐,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걸 믿어 버리라니깐.

질문자4(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크스님, 이렇게 말해 해 주신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 사합니다.

크스님 편하게 앉으세요, 그 앞으로.

질문자4(남) 부처님 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가는 건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가족을 이끌 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엇그저께 꿈을 꾸는데 소를 봤습니다. 소를

고, 그 발자국 떼어 놓는 것도 고정되지 못했 기 때문에 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 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을 던져 봐라. 마음을 즉, 탁 티어라 하는 겁니다. 그대 마음이 응축해서 그 육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이라는 통 안에서 벗 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그 말 씬을 하니까 꿈이 생기고 생사가 꿈이니 생사 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그 소가 다행이 요, 맥, 소로 화해서 보이는 거죠. 자기 소가 벗어나는 걸 자기가 봤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고삐를 탁 치고 이제는 매여 있던 이 육신, 통 안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마음이 벗어나서 자유롭게 뛰 다가 그것도 또 다시 잡아야 하니 화했습니다. 사람이 돼서 노인네로 익었습니다. 노인 네로 보이는 건 익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익 어 가니까 지금 익어 가는 도중에 또 여여하 게 잡아서 타고, 그 사람이 타는 거는 '너의 몸과 내 이 늙은 아버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을 역대로 보면서 형성시켰으 니까 당신의 조상이지, 얼른 쉽게 말해서, 당 신의 조상인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쫓 아가서 그 소고삐를 쥐려고 했는데 탁 끊어진 것은 맥이 태어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탄 거는 둘이 아니라라는 뜻이 요, 그 소가 화해서 변한 거는 맥에서 벗어났 다는 뜻이요. 그래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이제 여여한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더 하십시오. 하여튼 장하십시오. 착해서... 다 되겠습니까?

대중 예.

크스님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 할 것은 내가 추워서 걱정하는 것도 이상잖하 지 말고 허허, 법당이 있든 없든 마당이든 어 디든 상관없이 생각하고 그저 '내 마음은 자유다. 내 마음은 모두...' 마음이 자유죠? 그냥 버려라 쳐 온대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로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마음대로 할 수 있 고 점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뭘 줄 알아야 이것이 요량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실천을 해 보면 요 량이 생기고, 뜻도 아주 막연한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광대한 뜻이 나오리라고 믿습 니다.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 저기 지금 나간 분도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 우나, 마음이 곱고 착하고 할 양으로 애쓰니 까 그렇게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 위 문은 97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 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한 번만 잘못되면 그냥 왕창 다 없어져 거지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러나 이 보배라는 것은 울귀먹어도 울귀먹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고 늘어도 늘어도 붙어나지 않고 그냥 영원하게 세세생생에 쭉 그 종자가 내려가는 데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이죠.

또 관하는 게 생각이 낫든 안 낫든 그대로 뿌 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데 무슨 찾고 안 찾 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믿어라. 무조건 믿어 라. 이 세상에 낫으니까 있는 거다. 그러니 그 대로 무조건 믿어라. 자기 이외에 있는 게 아 니라 자기 종자이며 뿌리다, 불성이다 이거예 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대로 내가 생각이 낫 든 안 낫든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있으니까 믿는 거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뿌리로 인해서 싹이 산 다. '가지와 잎새가 푸르르게 되는 것도 바로 내 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 구나,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 니 참 감사하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갈 거고, 과거에도 그렇게 이끌어 왔을 테고 참 고맙구나.' 이게 그냥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끌어다가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끌어다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러니 우 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는 데 그 일에 몰두를 하는 것도 바로 주인공을 믿고 찾는 거예요, 그게.

형성시키기 위해서 지수화풍으로 된 정자 난 지를 빌려서, 또 지수화풍에서 날게 하고 지 수화풍을 또 형성케 해서 이렇게 삶의 보람을 가지려고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주인이 그들 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생산을 했는데 주인 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주 인이 하고자 하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겹테기가 자기라고 외치면서 그냥 돌아치니 깎 이 속의 주인공, 잡자기는 어이가 없을 겁 니다, 아냐. 어이가 없을 거예요. 자기가 그들 게 한번 움직여라 살아 불 양으로 형성시켰 는데 핏트가 다르게 자꾸 가니까 어이가 없을 거예요.

질문자3(남) 크스님, 저 한 가지 더 말씀드 릴 게 있는데요, 이전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 부분인데 나를 본다는 게, 견성을 한다는 게 혹시 이런 건 아닌지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 다. 제가 어떤 경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이러 게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해는 해마다 좋 은 해요, 달은 달마다 좋은 달이요, 날은 날마 다 좋은 날이네,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법 또 한 그러하다.' 이 나의 실상이라는 게 오직

보는데 초가집 밑에서 큰 황소가 기지개를 딱 퍼더니 그 소가 그것도 고삐가 똑똑 끊어지면 서 그냥 달아나는데 트럭터가 그 소를 막으 려고 했더니, 소가 뿔을 들이대면서 그 트럭 터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몸을 흘랑 벗으면 서 그냥 달아나가는 걸 갖다가 '이거는 내가 잡아야 된다.' 하고 쫓아가면서 양 고삐를 잡 았는데 잡는 동시에 한참 끌려가다가, 산으로 끌려가다가 그 소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 아버지가 되면서 등을 딱 대고 앞뒤려서 거길 타라 그러기에 마하반아바라밀다심경을 독 경하면서 그 산등을 올라갔더니 허허벌판이, 그냥 벌판이 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크스님 용하십시오. 거기까지 길 없는 길을 걸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여여하게 있는 줄 아셔야 할 테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에서 없 으면서도 이렇게 여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는 것을 함이 없이 우리가 초 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자취를 앞으로는 떼어 놓지 않았으니까 없고 또 자꾸 떼어 놓으면 발자국이 없어지니까 없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서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x 세로 6cm x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에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장친의 삼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저녁 평안을 위한 기도
4. 법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화일의 기도
10. 재물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반심으로 왔다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버려라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눈을 침오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전인 1
22. 광명전인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분
25. 애불문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계
30. 법성계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장군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애불가
37. 참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신유서편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생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불교를 믿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이식 상대
▶ 접이식 고급 경침

● 재질 : 편백나무
● 크기 : W60cm x D40cm x H28cm
● 특징 : 고급 접이식 경침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 : 개당 6만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